

뉴스홈 | 최신기사

## <오바마 당선> 상.하원선거도 민주당 대승

송고시간 | 2008-11-05 16:55



안수훈 기자  
기자 페이지



상원 56대 40, 하원 242대 161로 격차 확대 전망 금용위기.오바마 돌풍에 공화당 거물들 '우수'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11월4일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한데 이어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집권 다수당으로서 오바마 행정부를 뒷받침하게 됐다.

선거 전까지 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49명, 공화당 49명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2명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51대 49의 우위를 보여왔다. 하지만 35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를 통해 56 대 40으로(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현재 CNN 분석) 격차를 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원의 경우도 그동안은 민주당이 235석으로 공화당의 199석에 비해 우위를 점해 왔지만 전체의석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242 대 161로 민주당은 우위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원 분석 =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5석의 순 증가를 기록해 다수당 지위를 재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 추세가 최종까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했던 독자적인 법안처리가 가능한 '매직넘버'인 60석에는 못미치게 되지만 2006년 중간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의석 확충에 성공해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 거듭났다.

이날 새로 선출한 상원의석 35석중 공화당 현역의원 선거구는 23곳인데 반해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은 12곳이었고, 특히 현직 공화당 소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선거구도 네브래스카(척 헤이글 의원),버지니아(존 워너), 콜로라도(웨인 얼라드), 아이다호(래리 크레이그), 뉴멕시코(피트 도메니치) 등 5개에

1010회  
오보 담당자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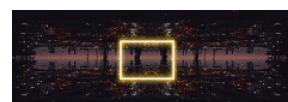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달해 일찍부터 민주당의 승리는 예상돼 왔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노동부, 교통부 장관을 지낸 공화당의 거물인 엘리자베스 돌 상원의원이 여성 은행가 출신의 민주당 케이 해건 후보로부터 일격을 당했다.

둘 후보는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오바마 열풍이 선거구로 상륙하자 "민주당에 모든 권력을 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의회에서)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거당적인 선거자금 지원 등에 힘입은 해건 후보의 맹렬한 추격전을 이겨내지 못했다.

뉴햄프셔에서도 민주당의 진 새틴 후보가 현역의원인 공화당의 존 스누누 후보를 꺾어 파란을 일으켰다. 공화당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버지니아주와 뉴 멕시코주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마크 워너와 톰 유달후보가 승리했다.

켄터키와 메인,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의 현역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도전을 물리쳤으며 뉴저지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노만 콜맨 상원의원과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알 프랑켄 민주당 후보가 격돌한 미네소타에서는 개표가 종반으로 접어들 때까지도 접전이 계속돼 12월 결선투표까지 가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강세지역인 조지아주에서도 공화당의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짐 마틴 전 주 하원의원을 앞서고 있지만 챔블리스 의원이 50% 득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12월에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두 사람은 조지아대학교(UGA) 재학시절 대표적인 전국 남학생 친목클럽인 시그마카이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40년 친구사이였지만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오리건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의 고든 스미스 상원의원이 주 하원의장 출신인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후보와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경합을 이어갔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최근 독직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화당 소속 테드 스티븐스(84) 상원의원이 약간 앞서고 있지만 최종 개표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꼽히는 켄터키주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킨을 낙마시켜 2004년에 있었던 톰 대술 전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패배를 되갚겠다는 기세였지만 개표결과 매킨이 선방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출신의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은 이번에 선거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친(親) 공화당 행보를 해왔지만 상원이 민주당편이 됨에 따라 충성대상을 바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원 분석 = 지난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12년간의 소수당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다수당으로 등장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의석 추가에 성공했다.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9석이던 하원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최소 11석을 추가하는데 성공해 의석분포는 245 대 162석으로 민주당의 우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270석을 넘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거대정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06년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의석을 대폭 늘림으로써 당분간 미국 정치는 민주당 전성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전날까지의 판세는 52개 공화당 현역의원 선거구가 초경향상태였던 반면 민주당 현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12개 정도만 접전일 정도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왔다.

공화당은 현역의원이 나오지 않는 선거구가 26개로 8개에 그친 민주당의 3배가 넘고, 지난 5월14일 치러진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딕 체니 부통령의 지원사격까지 받은 그레그 데이비스 후보가 민주당의 트라비스 칠더스 후보에게 패하는 등 공화당은 올 들어 보궐선거에서 전패할 정도로 공화당의 대패는 예견돼 왔었다.

특히 2006년 중간선거에서 이라크전 문제가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줬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금융위기 등 경제문제가 공화당 후보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뉴 잉글랜드주의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던 크리스토퍼 사이즈 의원은 민주당의 짐 하임즈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고, 민주당의 마이클 맥마흔 후보는 뉴욕시의 유일한 공화당 후보를 꺾고 등원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또 플로리다, 애리조나, 뉴욕,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승리했다.

ash@yna.co.kr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16:55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37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0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계서류문의